영산불교, 천상천하에 가장 위대하신 부처님의 실체를 사자후하다!!

Ⅰ. 부처님 모르는 기존 세계불교는 정통불교가 아니다
Ⅱ. 부처님께서는 무아속 절대계에 여여히 계신다
Ⅲ. 천상천하에 가장 위대하신 부처님의 실체
Ⅳ. 한국땅에 보신불로 오신 부처님 – 영산불교 부처님회상
Ⅴ. 티베트 – 달라이 라마의 우주기원 관련 5대 근원적 의문에 답하다

Ⅰ. 부처님 모르는 기존 세계불교는 정통불교가 아니다!

1. 부처님에 대한 무지로 아라한불교, 심교(心敎)로 전락한 세계불교

우주적 진리의 신불교인 영산불교에서는 이미 "부처님께서 무아속 절대계에 여여히 계심"을 세계불교계에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실존을 모르는 지금의 세계불교는, 불교가 부처님의 우주적 구원력을 중핵으로 하는 인류구원의 종교라는 차원 높은 불교의 진면목을 전혀 드러내주지 못하고 있으며, 아라한불교 · 심교(心敎)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부처님의 실존과 위대한 실체를 모르는 불교는 더 이상 불교가 아닙니다.

그 한 가운데에는 "무아론의 왜곡"이라는 불교사에 씻을 수 없는 교리의 왜곡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무아론은 "현상계 존재의 실체 없음"을 설한 교설입니다. 그러나 기존불교는 본체계의 존재인 청정무구한 인간 영혼체마저 없다는 의미로 무아론을 왜곡해 버렸습니다. 영혼체는 실존하는 인간의 본체이고 윤회와 해탈의 주체입니다. 왜곡된 무아론은 인간 영혼체의 존재를 부정함으로써 부처님의 존재마저 부정하는 망불적 논리를 제공했습니다.

이제 21세기에, 영산 당시 가섭존자와 아난존자가 한국에서 불과를 이루시고 신불교인 영산불교를 개창하여 2000년 이상 왜곡돼온 무아설을 바로 잡고 부처님의 실존을 만천하에 사자후 하는 것입니다.

◈ 남방불교는 대승경전의 불신관을 인정하지 않아 아라한 불교로 전락

남방불교에서는 불신의 존재나 부처님 실존의 근거가 되는 대승경전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영산 당시의 역사적인 부처님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방불교의 불신(佛身)에 대한 불인정 또는 무지는 결과적으로 불교자체를 왜곡 · 왜소화시키는 크나큰 폐해를 불러왔습니다. 단적인 예로, 자력수행에만 의지하는 남방불교는 아라한이 수행목표이자 한계입니다. 부처님의 절대적 가피가 필요한 정토보살이나 붓다가 되는 길이 없습니다. 위대한 부처님의 불교가 아니라 아라한 불교로 격하되어 버린 것입니다. 남방불교는 하루 속히 《열반경》에서 말하는 반자(半字)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만자(滿字)의 가르침으로 나오기 바랍니다.

◈ 북방 선불교는 심교차원으로 불교를 왜소화시키고 부처님을 모독

북방불교는 대승경전을 소의경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불신론이 잘 발달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지만, 전통적인 선불교의 관점에서는 불신(佛身)을 유심화시켜 자성삼신으로 봄으로써 불신론을 심하게 왜곡해 버렸습니다. 자성삼신은 마음에서 삼신불을 찾는 것으로서, 법신을 마음의 참된 성품으로 보고, 보신을 그 성품을 보는 지혜로, 그리고 화신을 마음 속에 지옥 · 극락을 만드는 결정적인 한 생각을 말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선불교의 교의는 이를 한 마디로 마음이 곧 부처, 심즉시불(心卽是佛)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불교의 이러한 불신관은 우주의 본성과 절대계의 적멸세계에 실존하는 부처님의 실체를 구분하지 못한 어처구니없는 망언입니다. 결코 '마음이 부처' 일 수는 없습니다. 불교는 심교(心敎)가 아니며, 부처님은 32상 80종호의 거룩한 몸매를 가진 무량광 빛의 인격체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선불교의 주장은 불교를 왜소화시키고 부처님을 모독하는 망불적인 교설입니다.

◈ 티베트불교의 불신론은 불신을 모독하고 불교를 왜곡시키는 망불적 교설



불사중인 제주도 제2본산

티베트불교 불신관의 가장 큰 특징은 부처님의 법신불인 대일여래(비로자나불) 중심의 일신설(一身說)과 즉신성불(卽身成佛)의 교설에 있다 하겠습니다. 물론 유식학파의 불신론에 따른 자성신 · 수용신 · 변화신의 삼신설의 입장도 있고, 사신설(四身說)도 있습니다.

대일여래 중심의 불신관은 붓다를 포함한 모든 개체적 존재를 대일여래, 즉 비로자나불의 화현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법신불과 우주 본성의 개념을 혼동한 데서 비롯된 대단히 잘못된 교설입니다. 모든 개체적 존재는 우주 본성에서 나온 것이고, 법신불인 비로자나불은 본성과는 다른 부처님의 우주적 광명지체(光明智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생의 이 몸으로부터 붓다의 삼신을 이룬다는 즉신성불의 원리는 불신을 왜곡하고 불교의 위대한 면모를 손상시키는 망불적 교설입니다. 예를 들면, 밀교수행으로 중음계에서 영혼체가 우주본성의 빛을 받아 얻는다는 보신불은 결코 진정한 보신불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보신불과는 천지차이도 더 됩니다. 불신은 수행자의 지혜와 자비가 우주본성과 합일 될 때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절대계에 만들어지는 것이지, 절대로 중음계나 인간의 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2. 부처님 실존 중심으로 불교 패러다임이 혁신되어야

불교는 실존하는 부처님의 구원력을 중심으로 하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불교는 스스로 수행하여 깨달음을 증득하는"깨달음의 종교"가 핵심이 아닙니다. 물론 자력수행을 통한 깨달음이 불교의 한 가지 중요한 특성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보다도 더 본질적인 불교의 핵심은 부처님의 가피(타력)에 의한 "구원의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종교와는 질적인 면에서 천지현격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의 하느님은 허구이며, 구원의 논리도 전혀 우주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불교는 부처님 실존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안됩니다. 먼저, 부처님의 실존과 위대하신 실체에 대한 철기둥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하겠고, 부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임을 확실히 알고, 실존하는 부처님을 찾는 칭명염불수행에 진력해야 하겠습니다. 지금의 세계불교는 부처님 실존 중심으로 혁신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합니다.



갑오년 초파일 12만 봉축등으로 장엄된 현지사 전경

Ⅱ. 부처님께서는 무아속 절대계에 여여히 계신다

1. 불(佛)의 삼신론과 부처님의 실존

부처님은 시공과 유무를 초월한 무아속 절대계에 여여히 계십니다. 이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법신 · 보신 · 화신의 삼신론입니다. 불신은 우주에서 가장 깊은 차원의 대적정삼매에 들어야 얻을 수 있으며, 붓다 외에는 어떤 종교의 수장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제 영산불교에서 큰스님의 체험적 입장에서 진정한 불신의 실체를 밝혀드립니다.

〈법신불〉 법신불은 붓다의 지혜와 자비의 품성이 우주 본성과 완전히 하나로 계합된 우주적 광명지체(光明智體)를 말합니다. 법신불은 이불(理佛)로서 보신의 모체가 되는 진불입니다. 인격적 형상을 가지지 않고 생각이나 판단하는 역능이 없는, 태산 같은 무량억종광 자체입니다. 법신불은 항상 삼천대천세계를 태양처럼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주 본성 자체를 법신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견해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신불을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고 합니다. 비로자나불은 부처님의 법신불인 동시에 모든 붓다님들의 법신불이 하나로 뭉친 우주적 대광명지체입니다. 여기에 모든 붓다님들의 보신불이 들어가면 하나의 우주적 인격체, 우주적 구원주체가 되어 중생구제와 세계평화를 위하여 상상할 수 없는 불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진정한 구원의 종교입니다.

〈보신불〉 보신불은 삼신불 중의 중심불로서 32상 80종호를 갖추고 영원히 멸도하지 않는 무량광으로 이루어진 빛의 인격체이십니다. 보신불은 다겁생에 걸쳐 수행과 공덕을 완성하였기 때문에 우주이법의 과보로 생기는 지복(至福)의 몸입니다. 보신불은 눈 · 코 · 귀 · 입 등 인간의 형상을 가지시고 생각하고 판단하시며, 중생의 업장을 소멸시켜 주시고 삼매로 이끌어주시며 소원을 들어주시는 중생구제의 본불이십니다. 중생이 믿고 의지하는 부처님이십니다.

부처님의 보신불이신 노사나불은 황금장삼에 108쪽 빨간 가사를 수하시고 머리를 말끔히 깎으신 모습이며, 우윳빛 피부에 향맑고 깔끔하신 얼굴, 눈이 부셔 볼 수 없는 영롱하고 아름다운 빛의 단엄한 상을 하고 계십니다. 사바세계에 오실 때는 8고리 석장이나 지휘봉을 드신 광휘현란한 변화신으로 나투십니다.

〈화신불〉 화신불은 본불인 보신불이 수많은 수행자를 제도하기 위해 삼매력으로 만들어낸 부처님의 몸입니다. 본불인 보신불은 무량의 화신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화신불은 하나의 독립된 부처님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화신이지만 항상 청정하고 밝은 빛을 띠고 있으며 자비의 상, 인욕의 상, 선정의 상, 지혜의 상, 지계의 상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화신불은 주로 열심히 염불하여 선정에 들 정도의 수행인에게 나타나셔서 공부를 지도하고 이끌어주십니다. 일반 사찰에도 이 화신불이 가셔서 중생을 교화하십니다. 그러나 청정하지 못한 절에는 가시지 않습니다. 그런 절에 있는 불상은 그냥 쇳덩어리일 뿐이고 더 이상 절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바세계에 몸을 받아와 처음으로 붓다가 되신 분과 이미 붓다가 되셨지만 중생교화를 위해 사바세계에 몸 받아 오신 분을 화신(응신 또는 응화신)이라고도 합니다.

2. 부처님 실존의 경전적 근거

(1)대승의 4대 경전의 부처님 실존 근거

《법화경》《화엄경》《열반경》《금강경》의 4대 대승경전에는 부처님의 실존에 관한 명백한 근거가 있지만, 이를 부처님의 실존으로 연결시키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법화경》은 구원실성(久遠實成)하신 보신불의 존재를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여래수량품〉의 관련 내용을 요약하면 "부처님께서는 백천만억 나유타 겁 전에 불과를 이루셨고, 그 때부터 항상 사바세계에 머물러 있으면서 설법하고 중생들을 교화해 오셨으며, 무량수명을 갖고 멸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부처님은 육신불도, 법신불도 아닌 인격적 보신불임이 분명합니다.

《화엄경》은 전체의 구성이 부처님의 실존을 상징하는 보신불이 대적정삼매에 들어 자유자재로 무량광을 방광하시어 수많은 불국토를 비춰주시고, 천상과 지상을 오가시면서 화신불을 내시고, 보살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법하게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화엄경》은 법신 · 보신 · 화신불의 실존을 모두 보여주는 근거가 됩니다.

《열반경》에는 상락아정의 적멸세계를 이야기하면서 본체계의 진아(眞我)의 존재에 대한 많은 근거와 함께 부처님께서 즐거움을 누리시는 것과 항상 계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즐거움을 누리는 주체는 법신불이 아니고 인격적 실체인 보신불을 말합니다.

《금강경》에 나오는 여래도 보신불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금강경 여래실견분 제5》에 "무릇 존재하는 모든 상은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상(相)이 상(相) 아님을 보면 즉시 여래를 볼 수 있으리라"라는 사구게 중의 여래는 인격적 보신불로 해석이 됩니다. 또한 부처님 실존을 부정하는 분들이 논거로 들고 있는〈법신비상분 제26〉의 사구게 "약이색견아(若以色見我) 이음성구아(以音聲求我) 시인행사도(是人行邪道) 불능견여래(不能見如來)"의 경우도, 현상계의 상(형색, 소리)을 쫓는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자이고, 그 사람은 본체계(절대계)의 부처님(보신불)을 볼 수 없을 것이란 것이 바른 해석으로서, 부처님 실존의 근거가 됩니다.

(2) 경론상의 불신론과 부처님의 실존 근거

경론 상의 불신론은 부처님 실존의 근거가 됩니다. 초기불교의《아함경》에서는 육신(生身)과 법신의 이신설(二身說)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대승경전 중에서 직접 불신론을 다루고 있는 경전은《금광명최승왕경》입니다. 이 경에서는 모든 여래에게는 화신(化身) · 응신(應身) · 법신(法身)의 삼신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신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때에 맞게, 행에 맞게, 설하는 법에 맞게 나투시는 몸이고, 응신은 32상과 80종호(種好)를 갖추고 등 뒤에는 둥근 광명을 갖춘다고 적고 있으며. 법신은 화신과 응신의 근본이 되는 몸으로서 여여(如如)와 여여의 지혜만을 가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식학파의 무착과 세친은 섭대승론,대승장엄경론 등에서 삼신설을 이론적으로 정립했습니다. 유식학파의 삼신설은 보통 자성신(自性身) · 수용신(受用身) · 변화신(變化身)을 말하며, 때로는 4신설(四身說)의 입장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경일승보성론(究竟一乘寶性論)에서는 모든 붓다는 법신 · 보신 · 화신의 삼신을 구족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 부처님 실존의 경험적 근거

여기에 부처님의 실존을 믿어야할 보다 결정적인 경험적 근거가 있습니다. 영산불교를 창립하신 광명 만덕, 자재 만현 두 분 큰스님께서는 불과를 이루는 과정에서 부처님을 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십니다. 부처님께서는 공양을 드시고 천녀들이 갖다 주는 차도 마시고 회의도 주재하십니다. 여러 붓다들로부터 보고도 받으시고 결재도 하십니다. 영산불교의 대법회가 열리는 날에는 부처님께서 현신하시어 무량광으로 참석 불자들의 업장을 씻어주십니다. 공양 · 천도재에 현신하셔서 업장을 씻어주시고 소원도 들어 주십니다. 이토록 부처님께서는 두 분 큰스님과 함께 하시면서 중생구제를 위해 눈 · 코 뜰 새 없이 바삐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처님을 안 계신다고 하면 큰 일 납니다. 그리고 두 분 큰스님께서는 당신의 불신(佛身)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체험적 진실입니다.

Ⅲ. 천상천하에 가장 위대하신 부처님의 실체

최초불이신 우리 부처님의 위대하신 실체, 너무나 거룩하시고 대자대비하시며, 전지하시고 만능자재하시며, 우주의 주(主)이시고 우주법왕이시며, 인격 완성자이시고 인류의 대스승이시며, 영원한 구세주이시고, 철학을 완성하신 최고의 철학자이자 최고의 과학자이시기도 한 우리 부처님의 참모습을 필설로는 도저히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특히, 대적정삼매에서 나오는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위신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제 그 위대하신 면모의 편린이나마 몇 가지 정리해 봅니다.

1. 부처님의 거룩하고 위대하신 위상과 인품

(1) 부처님은 우주의 주(主)가 되신 최초불이시며 붓다 중의 붓다이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무량겁 전에 중생의 몸으로 태어나 육도윤회를 해 오시다가 한량없는 세월 동안 자비이타행, 청정수행을 해오시면서 마침내 그 지혜와 자비가 우주본체와 완전히 하나 되어 우주의 주(主)가 되셨습니다. 부처님은 인류 최초로 붓다가 되셨으며, 모든 붓다님들을 길러내신 아버지요 스승이며, 붓다 중의 붓다이십니다.

(2) 부처님은 우주법계의 법왕이시며 절대자이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우주법계 중 가장 높은 차원인 10차원 절대계를 최초로 찾아 들어가신 우주법왕이십니다. 세부적으로는 보면, 아래로는 지옥 · 아귀 · 축생에서 시작하여 인간 · 아수라를 거쳐 6하늘 54품, 성중 3하늘 27품, 극락정토 27품, 약사정토 27품, 불격보살 3품, 그리고 최상위 절대계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의 법계가 있습니다. 세계 유수종교의 수장들은 하늘왕의 지위를 갖고 있는 정도입니다. 이에 비해 부처님은 외도를 포함한 수많은 우주법계의 총사령관격인 우주법왕의 지위를 갖고 계십니다.

(3) 부처님은 인간 진화의 최정점에 계신 인격 완성자이십니다.

부처님은 인간이 갖추어야할 지혜와 복덕과 자비를 완전히 구비하신 가장 이상적인 인격의 완성자이십니다. 철학자 플라톤의 이데아 개념을 원용하자면 부처님은 바로 인간 이데아입니다. 절대계에 빛의 몸으로 계시는 부처님은 진(眞)의 이데아, 선(善)의 이데아, 미(美)의 이데아 자체입니다. 인간이 갈 수 있는 진화의 최정점에 계시며, 우주의 본성과 똑같이 지혜자체이고 자비자체이고 복덕자체입니다.

(4) 부처님께서는 인류의 영원한 스승이시고 구원성자이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최초로 붓다가 되신 이후 극락 중의 극락을 마다하고 여러 차례 사바세계에 몸 받아오셔서 고통에 빠진 중생을 교화하고 구제해 오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붓다님들과 항하사 수의 보살과 아라한 성자를 길러내신 인류의 대스승이시며, 진정한 인류의 구원성자이십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가없는 인류에의 공헌과 대자비는 억만겁을 두고 설해도 오히려 부족할 지경입니다.

(5) 부처님께서는 미래제가 다하도록 남섬부주(지구) 교주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은 육신을 가진 인간이 살고 있는 우주에서 유일한 곳입니다. 다만, 이차원(異次元)의 별천지에는 인간의 조상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지구라는 불국토에는 악도로부터 구제해야할 수많은 중생이 있고, 불신을 가지는 붓다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수행코스이며, 마장들이 득세하여 수행의 최적지가 되므로 부처님께서 교주로 계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구촌의 영원한 구세주이며, 미래제가 다하도록 남섬부주 교주로 계실 것입니다.

2. 부처님은 불가능이 없을 정도로 창조주적 위신력을 구족

부처님은 전지하시고 만능자재하십니다. 우주본체인 공(空)과 완전히 합일되어 우주의 주(主)가 되신 부처님께서는 공이 가진 무한한 질료와 정보와 에너지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창조주적 능력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우주본체와 합일된 증거는 바로 절대계에 무량광의 자기 불신을 둔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무한한 능력은 대적정삼매의 힘이고 불신의 무량광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무량광 한 줄기 마다 특별한 역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억종의 무량광이 갖고 있는 능력은 무한하며 불가능이 없을 정도입니다. 무량광은 한량없이 방사해도 끝이 없고 일체의 지혜와 복덕, 자재한 위신력과 신통력을 지닌 불가사의한 빛입니다. 붓다 중의 붓다이신 우리 부처님은 다른 붓다들이 갖지 못하는 특별한 능력도 갖고 계십니다.

(1) 부처님의 전지 만능자재한 위신력은 필설로는 일만분의 1도 표현 못해

기존불교에서는 아라한이나 보살성자도 갖추지 못하는 부처님만이 가진 열여덟 가지 정신상의 위대한 위덕인 십팔불공법(十八不共法)을 말하고 있고, 어떤 경계에도 걸림 없는 21가지 지혜인 21무루지(無漏智)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영산불교의 큰스님께서 본 부처님의 능력은 이를 백천만배 능가하여 전지하고 만능자재하시고 무한합니다. 정말로 필설로는 그 일만분의 일도 표현하지 못하지만 여기서는 몇 가지만 예시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2) 업장소멸로 중생을 악도에서 구해 주시고 평화를 유지시켜주는 능력

- ▶ 부처님은 중생들의 질병을 치유하고, 수명을 연장하며, 큰 복을 줄 수 있습니다.
- ▶ 부처님은 업장소멸을 통해 지옥, 아귀, 축생으로 갈 중생을 구원하여 악도에 가지 않게 할 수도 있고, 악도에 떨어진 중생을 천도시켜 하늘로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 ▶ 중생들 몸 속의 원결영가를 떼어내어 비명횡사 등의 큰 불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현지사 부산분원

21세기 한국 땅에 인격적 불신(佛身)으로 오신 부처님!
부처님은 32상 80종호의 상모 단엄한 무량광 빛의 인격체!
부처님의 전지 만능자재하신 위신력은 필설로 만분의 1도 표현 못해!
붓다들의 보신불이 합일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은 우주주 구원주체!

▶ 부처님은 천백억 화신을 나투어 모든 불국토의 중생을 교화할 수 있습니다.
▶ 부처님은 대적정삼매와 백천삼매에 자재하시며 수행자를 삼매로 이끌 수 있습니다.
▶ 전쟁을 일으키려는 지도자와 그 세력을 응징하여 전쟁을 막을 수 있고, 무주고혼을 정리하여 사건 · 사고를 막고 국가사회의 안정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3) 붓다를 만들고 적멸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
▶ 부처님은 붓다를 만들고 보살 등 해탈성자를 길러낼 수 있는 위신력이 있습니다.
▶ 부처님은 극락세계 등 어떤 적멸세계도 자유자재로 창조할 수 있습니다.

(4) 초광속 이동, 초천문학적인 힘, 불가사의한 위신력을 자유자재로 구사
▶ 부처님은 광속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사속(思速)의 초광속으로 우주의 이 편에서 저 편으로 오가실 수 있습니다.
▶ 삼천대천세계를 들어 우주 저쪽까지 던져버릴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 손바닥만 한 공간에 사바세계보다 더 큰 세계를 건설하실 수 있습니다.
▶ 부처님은 몸을 우주만큼 크게도 할 수 있고 무한히 작게도 할 수 있습니다.

(5) 모든 외도를 일시에 제압할 수 있는 신통자재한 위신력 보유
▶ 부처님은 모든 외도수장과 권속들을 순식간에 빛으로 포위하여 수억도까지 온도를 올려서 조복받을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은 오직 부처님만 갖고 계십니다.
▶ 부처님께서는 극악한 사람이나 외도의 못된 천마들을 찰나에 쇠줄로 백천만명을 동시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동여매어 영원히 못 풀게 할 수 있습니다.

3. 부처님께서 길러내신 삼천대천세계의 여러 부처님

(1) 오여래부처님 – 석가모니불, 다보불, 약사여래불, 아미타불, 보명불
① **석가모니부처님**은 우주법계 최초불로서 우주법왕이시고 붓다 중의 붓다이십니다.
② **다보부처님**은 불세존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삼계지존이시고, 다보탑 안에서 수많은 본화보살들을 교화하고 계시며, 모든 붓다들의 사리를 1과씩 보관하고 계십니다.
③ **약사여래부처님**은 약사정토에서 보살들에게 의술을 가르치면서 교화하고 계시는 의중대왕이시며, 12대원 중에서 병고



현지사 고성분원

소멸을 가장 큰 본원력으로 세웠습니다.
④ **아미타부처님**은 서방극락세계에서 정토보살들을 교화하고 계시며, 48원 중에서도 염불행자를 극락세계로 인도하려는 강한 본원력을 갖고 계십니다.
⑤ **보명부처님**은 법보를 관장하시고, 용왕대신을 총괄하시며, 최초불 이래 모든 붓다들의 말씀을 경전으로 편집한 설법집을 1질씩 용궁에 보관하고 계십니다.
칠구지불모왕불 대준제보살님은 3번째로 붓다 되셨으나, 모든 붓다의 어머니 역할을 담당하시므로 오여래에서 제외됩니다.

(2) 사바세계에서 보살행하시는 4대 부처님 –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① **문수보살님**은 부처님의 좌보처로서 지혜와 변재가 뛰어나시고, 모든 붓다들의 스승 역할을 하시며, 4중죄를 소멸시킬 수 있는 위신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② **보현보살님**은 부처님의 우보처로서 실천행원의 상징인 부처님이시며, 보현 10대행원으로 보살들을 붓다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③ **관세음보살님**은 아미타부처님의 좌보처로서, 사바세계에 상주하시면서 중생들의 고통과 고난을 해결해 주시며, 극락정토로 인도하시는 대비를 상징하는 부처님이십니다.
④ **지장보살님**은 명부를 관장하시며 지옥중생을 교화하시는 대원본존 부처님으로서, 효행을 가장 중히 여기시며, 조상님을 천도하려면 지장보살님의 가피를 받아야 합니다.

(3) 인간의 길흉화복을 관장하는 3대부처님 – 보명불, 수미산정산왕불, 치성광여래불
① **보명불**은 5여래부처님으로서 앞에서 본대로 법보와 용왕들을 관장하십니다.
② **수미산정산왕불**은 큰 산의 산왕대신을 총괄 지휘하는 붓다님이십니다.
③ **치성광여래불**은 수많은 별들의 왕인 칠원성군을 통솔하시는 붓다님이십니다.

(4) 미륵불, 광명불, 자재통왕불


현지사의 대적광전과 석가탑, 다보탑

① **미륵불**은 불기 3천년경 한국 땅에 육신을 받아 오실 것입니다.
② **광명불**은 부처님의 태자로서 오여래급이며 부처님을 대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③ **자재통왕불**은 문수보살 법왕자로서 불국토의 설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Ⅳ. 불신으로 한국땅에 오신 부처님 –영산불교 부처님회상

1. 인도 땅에서 반열반 하신 후의 부처님 소식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실 경우, 직접 육신을 받아 오시는 경우와 무량광 빛의 몸인 불신(보신불)으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2600년전 부처님께서 인도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육신으로 오신 경우입니다.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신 뜻은 정법의 씨앗을 뿌리고 중생을 교화하여 붓다를 만드는 일대사 인연을 지어주기 위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도 땅에서 45년간 중생을 교화하시다가 반열반에 드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드신 후 어디로 가셨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동안 불교계에서는 우주본성(空)으로 돌아가 공과 완전히 하나 되면서 무화(無化)되어 버린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반열반에 드신 후 절대계에 계신 당신의 불신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육신에서 벗어난 부처님의 네 개 빛 덩어리 영혼체는 절대계의 불신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32상 80종호의 보신불로 금의환향하신 것입니다. 이 때 부처님세계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2. 불신(佛身)으로 한국 땅에 오신 부처님 – 신불교 정법시대 열어

부처님께서 불신으로 사바세계에 오시는 경우는 당대에 불과 이룰 제자가 몸 받아올 때입니다. 이번에 부처님의 본불(보신불)께서 두 애제자인 가섭존자 광명 만덕 큰스님과 아난존자 자재 만현 큰스님을 붓다 만들어 데려가시기 위해 한국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삼신을 가진 세 분의 붓다가 출현한다는 《열반경》의 이자삼점(伊字三點 ∴)의 비밀장을 실현시키고 새로운 정법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두 분 큰스님께서는 부처님의 지도로 불과를 이루셨고, 부처님의 법통을 이어받아 신불교인 영산불교를 개창하였습니다.

영산불교 현지사는 부처님 이후 실로 2600여년 만에 다시 부처님회상이 열리는 세계불교의 중심이고, 부처님께서 와계신 성지 중의 성지입니다. 부처님께서 오시니까 오여래부처님을 비롯하여 열여섯 분의 기라성 같은 붓다님들께서 불신으로 와서 상주하고 계십니다. 세계의 성지가 된 한국은 국운 융창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영산불교 사상은 한류(韓流)의 선봉장이 되어 세계를 누비게 될 것입니다. 세계는 큰 전쟁 없이 비교적 평화시대를 유지할 것입니다.

지금 영산불교에서는 영산 당시 뿌린 정법의 씨앗이 결실을 맺어 몇백 년에 한 분 나오기도 힘든 정토보살이 10년도 채 못된 기간 동안 이미 수십 명이 나왔고, 앞으로도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께서는 천만 생을 가도 한 번 만나기 어려운 부처님 회상과 인연을 맺어 금생도 잘 살고 세세생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Ⅴ. 티베트 – 달라이 라마의 우주기원 관련 5대 근원적의문에 답하다.

티베트불교의 지도자이신 달라이 라마(Dalai-Lama XIV, 1935.7.6~, 극락세계 상품보살)의 저서인 "한 원자 속의 우주" 에서는 우주기원과 관련하여 다섯 가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 빅뱅 이전에 무엇이 있었나?
2. 그 빅뱅은 어디서 왔는가?
3. 빅뱅의 원인은 무엇인가?
4. 왜 우리의 행성이 생명체를 가질 수 있게 진화했는가?
5. 우주와 그 안에서 진화한 존재들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제 영산불교에서 불과 이루신 큰스님의 가르침을 토대로 답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영산불교의 우주론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영산불교의 우주론 – 유아성기론(唯我性起論)

◈ 영체인간과 우주만물의 탄생 비밀

인간과 우주만물은 우주본체인 공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법계에는 수많은 우주가 있으며, 우주는 성 · 주 · 괴 · 공(成 · 住 · 壞 · 空), 즉 탄생(성겁) · 존속(주겁) · 파괴(괴겁) · 공화(空化–공겁)라는 네 주기의 순환을 무한히 반복합니다. 각 단계마다 20겁, 총 80겁이 걸립니다. 우주만물이 생성되는 성겁이 되면 공의 창조원리와 힘에 의해 물질의 씨종자인 질료인(質料因)과 인간 씨종자인 공아자(空我子)가 영적으로 드러납니다. 이와 함께 질료인과 공아자는 상호 중중무진연기를 하여 좀 더 진전된 영적 실체를 형성합니다. 이 영적 단계의 인간 실체를 영혼체(영체)라고 합니다. 공아자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인간본체인 1번 영체입니다. 곧이어 2번 영체와 3번 영체가 갖추어지면서 업이 달라 붙습니다. 이렇게 하여 1 · 2 · 3번 영체를 가진 영체인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영체인간은 '나(我), 주인공(主人空)' 으로서 나의 본체이며, 내 몸뚱이와 얼굴과 나의 환경을 창조한 불멸의 창조주체이자 연기주체이며 윤회주체입니다. 이는 유아성기론(唯我性起論)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의 창조원리와 힘에 중생의 공업력(共業力)이 가세하면 연기법에 의해 빅뱅(대폭발)이 일어나면서 물질세계의 창조가 시작됩니다. 현대과학에서 보면 빅뱅은 크기 10^{-33}cm의 초극미입자가 온도와 밀도가 무한대인 특이점에서 생겨나 10^{-43}초만에 가열 대폭발한 현상을 말합니다. 현대물리학에서 주장하는 빅뱅/인플레이션 이론은 물질도 공간도 존재하지 않는 무(無)에서 미시(微視)의 우주가 탄생한 이후, 1 · 2차의 상전이(相轉移)와 급팽창(인플레이션)이 끝나자 빛과 물질이 태어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주탄생으로부터 약 1만분의 1초(10^{-4}초) 후에는 수소의 원자핵인 '양성자' 와 '중성자' 가, 3분 후에는 '핵융합 반응' 에 의한 헬륨의 원자핵이, 38만년이 지난 후 원자가 탄생했고, 2~3억년이 지나면서 최초의 별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주가 생긴지 137억년, 지구는 45억년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산불교의 연기법 우주론인 성기론(性起論)은 현대물리학에서 제창한 빅뱅/인플레이션 이론을 인정함과 동시에, 현대물리학에서 밝히지 못하고 있는 5차원세계(6차원 시공)와 4차원세계(5차원 시공), 그리고 중음계(중간계)를 포함한 3차원세계(4차원 시공–현대물리학에서 많은 부분을 밝히고 있음)가 언제 · 어떻게 생성되었으며, 각 상전이(相轉移)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이 왜 그렇게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지와 이들 각 차원에서의 서로 다른 힘과 입자의 특성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주에 미치는 힘은 4대 힘(중력 · 강력 · 전자기력 · 약력) 외에 유정(有情)의 업력인 원초력(原超力)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히면서 우주탄생의 최종이론(Final Theory)은 초통일이론(superunified theory)을 넘어서 원초력까지 포함한 5대 힘(원초력 · 중력 · 강력 · 전자기력 · 약력) 의 등가(等價)를 제시하여야만 우아하고 아름다운 최종이론의 방정식이 도출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지사 대전분원

◈ 육체인간의 탄생 비밀– 영체인간이 별천지에서 온 시조인간을 부모로 하여 탄생

이렇게 탄생한 영체인간은 과거 괴겁 당시 자기가 살았던 세계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지옥에 있었다면 지옥으로, 하늘에 있었다면 하늘세계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괴겁 당시 육체인간으로 있었던 영체인간은 바로 육체인간으로 갈 수 없고, 부부가 결합할 때 모태로 들어가 수정이 되어야 육체를 갖고 세상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구에는 모든 인간이 파괴되어 한 사람의 육체인간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때 영체인간의 부모가 될 사람들이 바로 이차원(異次元)의 별천지에 사는 시조인간(始祖人間)들입니다. 이 별천지는 인간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 과거 괴겁 시에 인연에 의해 선택된 지구인간들이 이주해서 살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 우주 밖에 있는 인간들의 낙원, 무릉도원 같은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들은 나중에 성겁이 되어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지구로 귀환하여 인류의 시조가 됩니다. 따라서 영체인간들은 이 별천지에서 온 시조인간들과 부모의 인연을 맺고 모태 속으로 들어가 수정이 되고, 10개월간 자란 후 인간으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 모태에서 네 번째의 영체(4번)가 생기면서 인간은 네 개의 영체와 하나의 육체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2. 달라이 라마의 우주기원 관련 5대 의문에 대한 답변

(1) 빅뱅 이전에 무엇이 있었나?

①자연법칙(공과 창조원리, 연기법)은 항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빅뱅 이전은 전반적으로 공으로부터 나온 공아자와 질료인의 영적 상전이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②우주본체와 합일된 부처님의 불신(佛身)인 청정법신 비로자나불과 원만보신 노사나불, 그리고 모든 붓다님들의 법신과 보신은 성주괴공과 관계없이 절대계에 여여히 계십니다. ③괴겁 시 파괴되지 않는 해탈성자와 그들의 적멸세계, 성중 2하늘 이상의 천인도 있습니다. ④성겁시 빅뱅보다 먼저 드러난 인간 영혼체와 업이 있습니다. ⑤순환시기가 다른 여러 우주들이 있습니다. ⑥이차원(異次元)의 별천지와 거기 사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2) 그 빅뱅은 어디서 왔는가?

빅뱅은 하느님의 뜻에 의한 창조행위가 아니고 자연법칙(공)으로부터 옵니다. 빅뱅의 모태는 공이고, 공이 가지고 있는 무한의 자비와 사랑으로서의 성덕(性德)이 발현되어, 공에 내재된 인적 · 물적 씨종자가 빅뱅에 의해 현상세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3) 빅뱅의 원인은 무엇인가?

빅뱅의 원인은 공의 힘과 연기법칙과 중생의 공업력(共業力)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주의 순환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공의 힘과 창조원리(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공에 내재된 인간과 우주만물의 씨앗종자들이 연기법칙과 중생의 공업력에 의해 현상세계로 드러나는 결정적 단계가 빅뱅인 것입니다.

(4) 왜 우리의 행성이 생명체를 가질 수 있게 진화했는가?

공은 자존하는 우주본체로서의 대생명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다.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가 우주본체인 공의 성덕(性德)으로 발현된 것임을 이해한다면, 그 연장선상에서 그 생명체들이 진화를 하고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생태계)이 만들어 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 환경은 특히 중생의 공업력이 스스로 만들어낸 연기적 결과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빅뱅이 일어나면서 시공간이 펼쳐지고, 지수화풍(地 · 水 · 火 · 風)의 4대 요소와 5경(色 · 聲 · 香 · 味 · 觸)이 상호작용하면서 장구한 세월에 걸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지구환경이 조성되도록 진화 · 발전을 한 것입니다.

(5) 우주와 그 안에서 진화한 존재들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가?

우리 현상세계는 우주본체인 공에서 드러난 연기적 세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연기의 주체는 영혼체가 있고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주의 삼라만상은 연기의 주체인 인간을 중심으로 시공간 속에서 서로가 인(因)이 되고 연(緣)이 되어 상호 의지하고, 화합하며, 인과관계를 맺는 중중무진의 연기적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서로 돕고 사랑해야하는 관계임을 의미합니다.

이제 한 발 더 나아가 진화한 생명체들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곤충 같이 영혼체가 없는 동물들은 자연생, 자연사하며 윤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체를 가진 인간과 동물(12띠류 동물 등)은 윤회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진화란 영혼체의 진화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곧 인격의 완성을 향한 진화입니다. 그 진화의 종점은 우주본성과 동일한 자비와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진화의 최정점에 계신 분이 바로 우주의 주(主)이신 부처님이십니다. 진화는 크게 보면 윤회세계에서 해탈세계로의 진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화를 향해 서로 돕고 사랑과 자비를 베풀며 함께 가야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진화의 최정점에서서 대자대비를 베푸시어 최하단계(지옥,아귀,축생)에 있는 수많은 중생을 구제하시는 것입니다.

▪ 현 지 사 홈페이지 http://hyonjisa.com 메일 hyunjigung@hanmail.net
• 춘천본사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영서로 4892-23 ☎033-243-1787
• 제2본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311 ☎064-783-5355
• 부산분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 1325 이센타워 ☎051-554-5150
• 대전분원 대전광역시 서구 동서대로 1070 ☎042-525-5325
• 고성분원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항길 7 ☎033-681-5515
• 서울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길 18 ☎02-453-5953
• 대 구 분 원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5동 중앙대로 29길 20 ☎053-654-5557
• 일 본 분 원 일본국 야마구찌켄 이와쿠니시 오츠죠 3-3-10 ☎81-827-31-1661
• 영산불교대학 대전광역시 서구 동서대로 1070 ☎042-525-5325